

한수원 의뢰받아 분석 환경조사보고서 보니

영광 한빛원전 앞 바다고기 씨가 마르고 있다. 원전 취수구에서 유입 물질을 차단하는 스크린에 치어 등 어류가 하루에도 30만~300만 마리씩 부딪혀 죽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은 원자로를 식히는 용도로 취수구를 통해 바닷물을 엄청난 속도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연간 해수 사용량은 115억이 넘는다.

어종 및 개체수 감소로 영광지역 어민들은 원전 가동 전과 달리 몇 시간씩 배를 몰고 먼바다로 나가야 하는 등 손실을 떠안고 있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어민 피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빛원전 앞바다 고기 씨가 마른다

취수구 스크린 부딪혀 하루 치어 30만~300만마리 폐사 6년새 출현 개체수 85% 급감... 먼바다 조업에 어민 손실

◇최근 6년 새 출현 개체수 85% 감소 = 20일 '한빛원전 주변 해역 어류 출현 개체수 및 분포조사(한빛원전 환경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취·배수구 등 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채집된 어류는 3835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7년 2만4031마리보다 무려 85% 줄어든 것으로 영광지역 어민들의 주장대로 원전 주변 앞바다의 고기 씨가 마르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부터 의뢰를 받은 한 업체가 매년 계절별로 4차례씩 동일 장소 및 방법으로 어류 개체 및 어종을 채집, 합산한 결과다.

채집 당시 출현 어종(魚種)수도 90종(2007년)에서 76종(2013년)으로 35% 줄었다. 채집된 어류 중 주를 이룬 어종도 정멸·전어·서대류·참서대(2007년·계절 순)에서 정멸·정멸·황갈달이·플랑크톤(2013년)으로 전어와 서대가 우점종의 자리를

빼앗기는 등 변화가 있었다.

연도별 원전 주변 해역 어류 출현 개체수와 어종수는 ▲2007년 90종 2만4031마리 ▲2008년 116종 2만1340마리 ▲2010년 77종 6875마리 ▲2011년 78종 9133마리 ▲2012년 50종 3808마리 ▲2013년 76종 3835마리로 2011년을 기점으로 어종수와 개체수가 대폭 줄었다.

◇원전 취수 과정서 하루 300만마리 어류 폐사=원전에 필요한 물을 흡입하는 과정에서 지난 2007년 기준, 하루 평균 최소 300만 마리 이상의 치어 등 어류가 취수구 스크린에 부딪혀 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빛원전 6호기 취수구를 계절별로 20분씩 총 80분간 돌려 채집,

분석한 한빛원전 환경보고서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다. 고장이나 정기점검의 경우가 아니고서는 원전 가동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해 연 단위로 환산할 경우 무려 11억 마리 이상의 치어 등 어류가 취수구 스크린과 충돌해 죽는 셈이다.

원전 앞바다 출현 어종 및 개체수 감소는 원전 취수구 충돌 폐사 어종 개체수에 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분석 결과, 스크린과 충돌해 폐사한 어류 개체수도 하루 평균 30만마리(연간 1억1000만 마리) 수준으로 대폭(90%)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5개 지점 채집 어류 변화	
2007년 2만4031마리	85% ↓
2013년 3835마리	
출현 어종 변화	
2007년 90종	35% ↓
2013년 76종	

김영복 영광수협 조합장은 "원전이 들어선 이후 어종 및 개체수가 대폭 줄면서 어민들은 이제 몇 시간씩 배를 몰고 나가 고기를 잡고 있다"며 "여태껏 '어류는 헤엄쳐 돌아다니는 만큼 조업손실이 있을 수 없다'는 대응으로 일관, 보상을 미뤄온 한수원 측이 이제라도 어민 피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 선고

법원이 '운항에 투입되는 안되는' 세월호를 운항토록 한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김한식(71) 대표이사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해운조합 김모(51) 운항관리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침몰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형법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되는 형편이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0일 중·개축 등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세월호를 운항케 해 304명이 숨지고 152명이 다치는 등 침몰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업무상과실 치사·상 등)로 기소된 김 대표를 비롯한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대표에게 업무상과실선박매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5년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모(63) 청해진해운 상무에 대해서는 금고 5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안모(60) 해무이사는 징역 6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5570만원을 선고했다.

또 ▲남모(56) 청해진해운 물류팀장은 금고 4년, 벌금 200만원 ▲김모(45) 물류팀 차장 금고 3년, 벌금 200만원 ▲박모(46) 해무팀장 금고 2년 6월, 징벌유예 4년,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 "세월호 증개축 공사를 주도했고 배의 복원성 약화를 보고보고도 시정하지 않은 채 적자를 면회하려고 과적과 부실고박을 도모했다"며 선고배경을 설명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



할머니의 글짓기 집중력

20일 광주시 남구 양림동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8회 어르신 우리말 글짓기 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어르신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기아차 채용사기 모집책 상당수 생산직 직원

모집책 최소 5명 동원...40명에 24억원 가로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채용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기 행각을 도왔던 모집책이 최소 5명에 이르고 이들 중 상당수는 기아차 생산직 직원이라는 진술을 확보, 조직적 '채용비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인 생산직 직원 A(34)씨가 생산직 직원 B(36)씨 등 최소 5명의 모집책을 동원, 40명에게 24억 원을 가로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집책 상당수는 기아차 생산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최근 2년간 입사를 희망하는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1인당 3000만~1억2000만 원씩 총 9억6000만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을 확인했으며, A씨가

또다른 모집책 4명과 함께 벌인 사기 행각을 파악하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A씨 등이 채용사기 행각을 벌이던 지난해 2월 서류모집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에 400여 명의 생산직 사원을 채용했으며,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실제 채용이 이뤄진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모집책을 쫓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모집책 상당수가 기아차 직원인 점, A씨 등이 실제 채용시켜주지 못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아하는데도 광범위하게 사기행각을 벌여온 점 등에 미뤄 조직적으로 '채용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

"관리비 부당징수 '해프는상인회'와 새벽시장 운영·관리 협약 파기하라"

남광주시장상인회, 동구청 항의 방문

광주 남광주종합상가(해프는)시장상인회(이하 해프는상인회)가 영세 노점상들에게 관리비를 부당징수한 것과 관련, 남광주시장의 또 다른 상인회인 남광주시장상인회가 20일 해프는상인회의 새벽시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약 파기를 요구하며 동구청을 항의방문했다.

남광주시장상인회 소속 상인 4명은 이

날 동구청 직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프는상인회의 관리비 부당징수로 남광주시장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고객 감소 등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광주시장상인회는 이어 "(남광주시장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협약서)에 주차장관리 운영상 비리가 있으면 협약을 해지

하도록 돼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해프는상인회)와의 협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남광주시장은 두 개의 상인회가 있으며 협약서상 해프는상인회는 새벽시장이 열리는 광장주차장을, 남광주시장상인회는 푸른 길 공원 지하주차장을 각각 관리·운영하도록 돼 있다.

남광주시장상인회는 또 "구가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해프는상인회의 행위를) 엄연히 불법행위로 간주한 것 아니겠느냐"라며 "구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땐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담양 펜션 실소유주 지목

구의원 사전 구속영장

담양 펜션 화재로 10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을 수사 중인 담양경찰이 이 펜션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지목된 광주 북구의회의원 최모(55)씨 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무허가 바비큐장을 짓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점과 자신이 "펜션 사장"이라고 주변에 알리고 다녔다는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감안, 최씨를 실질적인 주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펜션 매입 당시 계약자를 아내 명의로 했고, 바비큐장도 직접 지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조만간 최씨를 국유재산법위반과 건축법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최씨는 담양군 대덕면 H펜션에 바비큐장 등 무허가 시설을 설치, 지난 15일 바비큐장에서 고기를 구워먹던 대학 동아리 학생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과자 많이 샀다고 아내 때린 남편

○~과자를 많이 샀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손찌검을 한 5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경찰서행.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50분께 광주시 동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내 정모(44)씨와 과자를 10봉지 산 것을 놓고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자 살 때 말고는 집 밖으로 전혀 나가지 않는 아내가 호통 한번 쳤다고 샀던 과자를 방바닥에 내팽개치자 화가 났다"고 진술.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로 오세요!

한빛타워 ----- 분양/임대



-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초대형 빌딩
- 핵심상권에 위치 고객 흡입력 우수
- 인접상가에 비해 분양가 저렴
- 신탁회사 자금관리로 수 분양자 보호

• 시행사 | 한빛(개발) • 시공사 | 건해종합건설(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프라임타워 ----- 분양/임대



- 유흥 밀집지역에 위치 유동인구 접근성 우수
- 높은 층고로 인한 입주층의 다양화 실현
- 후면건물 모델 신축으로 위락시설 시너지 효과 창출
- 신용등급 높은 대형건설사 책임시공

• 시행사 | (주)프라임글로벌, (주)프라임개발 • 시공사 | (주)립인프라 • 신탁사 | 아시아신탁(주)

다성드림메디컬타워 --- 임대



- 위치·가격·품질 넘버원!
- 상가오피스텔 밀집지역으로 쇼핑 및 휴식거리 형성
- 인접상가에 비해 임대가 저렴
- 높은 전용률 극대화로 임차인 이익 실현

• 시행사 | (유)다성 • 시공사 | 남도건설(주)

분양·임대문의 (061)333-7077 / 010-5587-3080 혁신도시의 모든 것 상담환영 주식회사 오 늘 나주솔로몬 공인중개사